

팔레스타인 여성작가 사하르 칼리파 연구*

—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인식을 중심으로 —

송 경 숙

본 논문은 팔레스타인 여성 작가인 사하르 칼리파 Sahar Khalifah(1941-)의 연작 장편 소설 『가시 선인장 al-Subbar』(1976)과 『해바라기 'Abbad al-Shams』(1980)를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II장에서는 피지배문학, 저항문학, 민족문학으로서의 팔레스타인 소설문학의 특성과, 단순한 문학의 한 장르를 넘어 역사의 기록이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소설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사하르 칼리파의 문학적 위상을 자리 매김한다. III장에서는 본 소설이 어떻게 배타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민족문학의 차원을 극복하고 보다 다양한 시각의 탈식민주의 인식을 드러내는가를 탐구하고, IV장에서는 본 작품을 제 3세계 유색 여성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글쓰기의 하나의 실천 양태로 파악하고 이 작품에 나타난 점령하의 팔레스타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중의 억압과 여성해방의식과 일상 언어와 속어를 소설적 언술로 바꾸는 여성적 글쓰기의 미학적 전략을 규명한다. V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자가 연구해 온 팔레스타인의 대표적 남성 작가들과 사하르 칼리파를 비교하여, 사하르 칼리파 문학의 변별성을 도출한다. 그 변별성이란 요컨대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으로 규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성해방과 민족해방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일상의 언술을 통해서 소설의 언술화하면서 여성의 개인적 삶을 통하여 민족의 역사적 삶을 탐구하는 것이다.

I. 머리말

팔레스타인 문학은 아랍 문학의 한 부분이다. 이는 팔레스타인 문학이 아랍문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그 영향을 받으며 성장·발전해 왔고, 문학이 강력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사회변혁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체 아랍문학과 그 특성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는 바 아랍의 현대사는 격변과 위기로 점철되어 왔다. 1948년 제 1차 중동전과 이에 따른 팔레스타인의 상실과 민족의 이산, 1952년의 이집트 혁명과 왕정의 붕괴, 1956년의 제 2차 중동전, 알제리 혁명, 1967년 6월 전쟁의 참담한 패배 등... 이러한 역사적 시련과 격랑 속에서 현대 아랍 문학은 성숙해 왔다.

* 이 논문은 1993년도 교육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문학은 놀이, 고급의 놀이’라고 T.S. 엘리엇은 정의한 바 있지만, 늘 도전과 위기에 노출되어 온 아랍적 현실, 특히 팔레스타인의 상황 속에서 문학은 ‘놀이’ 이상의 무엇이 될 것을 강요당해왔다. 그러한 까닭에 아랍 소설은 비판적 현실 탐구와 사회 변혁에 깊이 관여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팔레스타인 소설에서 더욱 두드러 질 수밖에 없다.¹⁾

사하르 칼리파 Sahar Khali:fah (1941 ~)²⁾는 이스라엘에 점령당한 요르단강 서안에서 여성운동과 문필활동을 겸하고 있는 작가이다. 사하르 칼리파는 여성작가의 활동이 많지 않은 점령지내에서 독보적인 여성작가일 뿐만 아니라 이밀 하비비의 뒤를 잇는, 점령지 팔레스타인 소설의 대표적인 작가로 평가되고 있으며(Mikhail Ashrawi · Hanan Daud, 1982:262) 그의 작품은 이미 히브리어, 이태리어, 불어, 독어, 화란어, 영어 등으로 번역되었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의 노예들이 아니다 Lam Na'ud Jawari Lakum』(1974), 『가시 선인장 al-Subbar』(1976), 『해바라기 'Abbad al-Shams』(1980), 『실재하지 않는 여인의 고백 'T'irafat 'Imra'ah Ghayr Waqr'iyyah』(1986)등의 문제작을 발표하였다.

그의 첫 소설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의 노예들이 아니다』는 “남자들이란 모두 임신하고, 출산하고, 요리하는 여성만을 꿈꿀뿐인”(Sahar Khali:fah, 1974:38)아랍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상황과, 사회적·가정적 속박을 벗고 자유를 추구하려는 여성이 맞게되는 비극을 그리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의 노예들이 아니다』가 보여준 여성해방은 상당한 충격과 반응을 일으켰지만, 사하르 칼리파가 문학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가시 선인장』의 성공 이후이다.

그의 소설은 철저한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여성문제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작품(『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의 노예들이 아니다』, 『실재하지 않는 여인의 고백』)과 민족 해방투쟁이라는 조국의 문제를 주제로 하면서 그 테두리 속에서 여성문제를 함께 조명하는 작품(『가시 선인장』, 『해바라기』)으로 대별할 수가 있다.

본고에서는 후자에 속하는 두 작품만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 까닭은 이 두 작품이 그의 출세작일 뿐만아니라, 팔레스타인 민족문학의 거장으로서, 민중의 삶을 형상화한 갓산 카나파니Ghassa:n Kanafa:nī: (1936~ 1972)³⁾나 이밀 하비비Imī:l Habī:bi:

1) 소설의 사회적 문화적 변혁을 다룬 대표적 논문으로는(송경숙, 1991:412~428) 참조.

2) 웨스트뱅크의 나불루스市에서 출생. 어린 나이에 결혼, 13년간의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저술 활동 및 여성운동에 전념.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여성학 및 미국문학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 취득(1988). 현재 나불루스市와 가자 지구의 여성문제연구소 간사.

3) 갓산 카나파니에 관해서는(송경숙, 『갓산카나파니 연구 - 팔레스타인 民族解放運動의文學的反映』韓國 外國語大學校 大學院, 1992) 참조.

(1921 ~) (송경숙, 1984:162-183;1988;1992:46-49)등, 팔레스타인 남성작가들과 여성작가인 사하르 칼리파가 어떤 변별적 차이를 갖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여성문제만을 다룬 작품 보다는 팔레스타인 문제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팔레스타인 소설문학에서 사하르 칼리파가 차지하는 위상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소설문학의 흐름과 피지배문학, 저항문학, 민족문학으로서의 팔레스타인 소설의 특성을 조명한 다음(Ⅱ) 『가시 선인장』과 『해바라기』를 제3세계 유색 여성작가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글쓰기의 한 양태로 파악하고, 작품의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작품에 내재한 탈식민주의 인식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으며(Ⅲ),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인식과 그 미학적 전략은 무엇인가를 밝히고(Ⅳ), 이를 근거로 하여 그간 논자가 연구해 온 갓산 카나파니나 이밀 하비비 등 팔레스타인 남성작가, 나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구 및 아랍, 혹은 한국의 여성 작가와의 변별적 요소를 확인하고자 한다(Ⅴ). 다른 작가와의 변별적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바로 사하르 칼리파가 누구인가를 입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Ⅱ. 역사의 기록으로서의 소설

본장에서는 1948년 이전, 1948년부터 1967년까지, 1967년 이후로 나누어 팔레스타인 소설 문학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고, 소설이 역사의 기록이 될 수 밖에 없는 팔레스타인 문학의 특성을 고찰하기로 하겠다.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서구와의 접촉이 상당히 늦어져, 시문학 중심의 아랍 문학의 전통이 보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라키나, 불란서 지배에 따른 문화적 침체로 말미암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서야 소설문학이 태동하게되었던 마그립 지역(Roger Allen, 1982:21-22)에 비한다면 팔레스타인은 아랍국가들 가운데서는 비교적 일찌기 소설문학에 눈을 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설 문학의 정착을 위한 칼릴 바이다스 Khali:l Baydas (1875 ~ 1949)등 선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⁴⁾에도 불구하고, 워낙 시문학이 절대적인 풍토 속에서 소설문학은 쉽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가 1940년대에 가서야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춘 창작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48년 전쟁은 1차대전 이후 어렵게 시작된 소설문학의 가능성을 앗아간 것은 물론, 생존마저 확신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 몰았던 것이다.

4) 이들은 『보옥 al-Nafa'is』(1908), 『꽃 al-Zahrah』(1922), 『새벽 al-Fajr』(1935)등의 잡지를 통하여 유럽과 러시아의 소설을 소개하고 아랍 작가들에게 창작의욕을 자극하였다.

1948년 이후의 팔레스타인 문학은 지리적으로 점령지 내·외⁵⁾ 즉 팔레스타인 땅과 디아스포라(diaspora)로 양분될 수 밖에 없었다. 먼저 점령지 즉 이스라엘 치하의 상황을 보기로 하자.

팔레스타인의 붕괴로 인하여 당시 110만 정도의 팔레스타인 인구 중에서 도시인·지식인들은 대거 팔레스타인을 떠났고, 지적·문화적으로 낙후된 약 20만 정도의 농촌인구만이 팔레스타인 땅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이들은 전통 아랍문화 유산과 단절당한채, 주변의 아랍국들과도 완전 격리되어 이른바 ‘문화적 봉쇄’ Hisa:r Thaqa:fi: (Ghassa:n Kanafa:nī:, 1968:10-12)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진공상태에서 소설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1964년에 가서야 점령지내의 첫 장편소설로 간주되는 타우훤 화이야드 Tawfi:q Fayya:d의 『불구자들 al-Muwashshahuna』⁶⁾이 발표되었을 뿐 장편소설은 거의 불모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점령지 밖, 즉 피난지·망명지에서의 문학은 어떠했는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이락 등지로 흩어진 시인·작가들은 살아 남는 것만이 최고의 덕목이 되는 위기의 삶 속에서도 꾸준히 작품을 썼는데, 물론 산문문학보다는 시문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실향민과 더불어』, 『귀향』, 『사라진 사람들』, 『귀향의 노래』, 『평화의 샘으로의 복귀』, 『돌아갈 사람들』... 등 이 시기에 출판된 시집의 제목만을 일별해 보아도 당시 피난지 팔레스타인 시의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다. 실락원에 대한 피빛 향수, 난민생활의 아픔, 귀향의 그 날에 대한 낙관과 저항의지, 향토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식과 민족적 굴욕감,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 등은 피난지 시의 일관된 주제였을 뿐 아니라 이 시기의 산문문학의 그것이기도 하였다.

점령지내에서 보다는 피난지에서 비교적 활발히 산문문학이 생산되었다고 해도 장편소설 분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 시기의 대표적인

5) 국제법에 따른 이스라엘 점령지는, 1967년 6월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랍측 으로부터 강점한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골란고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문학에서 점령지의 개념은 67년 전쟁의 점령지와 아울러 현재 이스라엘의 국토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점령지 내외로 구분하는 것이 현재 이스라엘 내이든 67년 전쟁 이후의 점령지이든간에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문학과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세계 도처를 전진하는 사람들의 상이한 문학 적 상황을 드러내기에 보다 편리하고 유효하다는 점에서 필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자신이 사용하는 점령지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한다.

6) 『불구자들』은 직업을 가질 기회를 봉쇄당한, 교육받은 한 팔레스타인 젊은이가 이스라엘 탈출을 시도하다가 국경에서 사살당하는 비극을 다루고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다. 타우훤 화이야드는 장편소설 뿐아니라 희곡분야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는데 그의 희곡 『광기의 집 Bayt al-Junu:n』(1967)은 점령지 최초의 희곡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소설 작가로는 자브라 이브라힘 자브라 Jabra: Ibra:hi:m Jabra: (1914 ~)⁷⁾와 잣산 카나파니를 들 수가 있다. 특히 이데올로기와 예술성의 탁월한 접합이라고 평가되는 잣산 카나파니의 소설적 업적은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1948년부터 1967년 까지의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의 소설적 시도는 『태양속의 남자들 Rija:l fi: al-Shams』(1963)과 『당신들에게 남은 것 Ma: Tabaqa: Lakum』(1966)의 작가인 잣산 카나파니 한 사람에게 의해 이룩되었고, 『태양속의 남자들』은 정당한 현실인식과 탁월한 예술성이 조화된 팔레스타인의 첫 소설적 성과이며, 『태양속의 남자들』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소설은 ‘웅변’Khita:bah의 시대에서 ‘창작’ Kita:bah의 시대로의 전환을 이룩하였다.”(Fa:ru:q Wa:di:, 1981:35) 라는 파룩 Faruq의 말대로 잣산 카나파니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던져져 있는 상황에 대한 집요한 관심과 새로운 소설기법에 대한 부단한 탐구, 절제된 시적 언어 등을 통하여 팔레스타인 소설사에 큰 획을 그은 작가이다.

1967년 6월 전쟁의 패배, 그것도 단 6일만의 패배는 전 아랍세계의 문인·지식인들의 의식을 강타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이 해방전이 될 것으로 고대해 오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특히 점령지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크나 큰 충격과 좌절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이 독자화·무력화되는 도화선이 되었으며 점령지의 팔레스타인 문학에 있어서는 소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패전은 팔레스타인 민중의 의식 속에 더욱 확고한 저항과 혁명의지를 일깨웠고, 이러한 변화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아랍·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선호해왔던 시문학의 한정된 틀보다는 보다 정교한 미학적 수단이 요구되기에 이르렀으며, 현실과 예술, 인간과 사회의 관계맺음을 위해서는 시보다는 소설이 보다 효과적임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산문문학이 시문학과 어느 정도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었고, 80년대 후반 이후 점령지내의 장편소설의 숫적인 증가가 뚜렷하기는 해도 아직까지 팔레스타인 문학의 주류는 장편소설 보다는 시와 단편소설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장편소설의 길이도 상당히 짧은 편이어서 서구의 Nouvel나 Long Short Story에 가깝다.(Hisa:m al-Khati:b, 1990:318)

점령지 내의 장편소설을 주도해 오고 있는 작가로는 이밀 하비비가 있다. 1974년에 발표한 소설 『사이드 아브 알-나흐스 알-무타샤일의 실종에 얽힌 괴이한 사건들al-

7) 1948년 이후 바그다드에 거주해 온 자브라는 1954년 윌리엄 포크너의 『음향 과 분노』를 번역, 소개하는 등, 서구의 새로운 문학이론을 아랍세계에 가장 많이 소개한 비평가이며, 아랍소설의 서술구조를 실험적으로 개척한 작가이기도 하다. 자브라 이브라힘자브라에 대해서는(송경숙, 1984:162-183) 참조.

Waqa'i' al-Ghari:bah fi: Ikhtifa:' Sa'i:d 'Abi al-Nahs al-Mutasha:'il』⁸⁾은 팔레스타인에서 뿐만 아니라 전 아랍 세계에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이스라엘 점령지 내의 아랍 산문문학의 최초의 큰 수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소설 『사이드 아브 알-나흐스 알-무타샤일의 실종에 얽힌 괴이한 사건들』은 아랍 전래의 이야기 틀인 마까마 형식을 창조적으로 재현했으며 강력한 풍자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팔레스타인 소설 뿐만 아니라 아랍문학 전체에 창조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1967년 이후 점령지 밖에서의 팔레스타인 소설은 부족한 양을 문학의 질로 보충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왔다. 갓산 카나파니는 계속해서 많은 단편소설들과 『하이파에 돌아와서 'A:'id illa: Hayifa:』(1969), 『사이드 엄마 'Umm Sa'ad』(1969) 등의 장편소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는 현실극복에 대한 실천적 관심으로 말미암아 급기야 암살당함으로써(1972) 그의 문학세계는 강요된 완성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다.

바그다드의 자브라 이브라힘 자브라는 『배 al-Safi:nah』(1970), 『좁은 거리의 어부들 Sayya:du:n Fi: Sha:ri' Dayyiq』(1960,74), 『왈리드 마스우드를 찾아서 al-Bahth 'An Wali:d Mas'u:d』(1978) 등의 소설을 통하여 실험적이고도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였다.

이상의 간단한 언급에서도 드러나듯이, 베이루트에서 활동하다가 암살 당한 갓산 카나파니, 바그다드에 거주하고 있는 자브라 이브라힘 자브라, 이스라엘의 하이파를 지키고 있는 이밀 하비비, 이들 세 사람의 작가들이 바로 팔레스타인 소설문학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다.

D.H. 로렌스의 말대로 '소설은 인생이다'라고 한다면 '팔레스타인 소설은 팔레스타인의 삶'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 소설은 팔레스타인의 붕괴 이후 요르단 → 시리아 → 레바논 → 튀니지아를 거쳐 요르단강 서안의 부분적 자치에 이르기까지, 쫓기는 지도부와 떠도는 민중의 삶의 궤적일 수 밖에 없다.

살마 카드라 자이유시 Salma: Khadra': Jayyusi:는 피지배문학의 특성으로 '정치적 긴급성' '집단적 가치' '민족적 정체성'을 거론하는데 (Salma: Khadra: Jayyusi, 1992: 67-68) 이러한 사실은 바로 팔레스타인 소설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소설은 『태양속의 남자들』이 보여주듯이, '한 낮의 사막에 세워 놓은 급수탱크 속의 열기와 어두움 속에서 질식해 가고 있는', 주인공들의 정치적 외마디에 다름 아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문학에서는 극히 개인적 경험과 예술도 민족적 증언과 폭로

8) Sa'i:d는 happy, 'abu: al-Nahs는 unhappy, al-Mutasha:'il은 al-Mutasha:'im (pessimistic)과 al-Mutafa:'il (optimistic)의 합성어이다. 이것은 주인공의 이름으로서 주인공의 복잡한 성격구조를 그대로 나타내준다. 송경숙, 『갓산 카나파니 연구 - 팔레스타인 民族解放運動의 文學的 反映』, 42면 참조.

의 성격을 가지고, 개인적 가치보다는 민족적·집단적 가치를 추구하며, 민족적 정체성의 확립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이들의 소설은 단순한 문학의 한 장르를 넘어서 역사의 기록, 역사적 문서가 되고 있으며 소설가는 개인의 경험은 물론 민중의 투쟁을 역사화하는 의무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팔레스타인 문학은 식민주의 억압에 대항하는 저항의 예술이며 해방의 예술인 것이다.

이상으로 논자는 다소 긴 지면을 할애하여 팔레스타인 소설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는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사하르 칼리파의 문학을 제대로 자리 매김하고, 다른 팔레스타인 작가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소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인식에 의한 것이다.

Ⅲ. 『가시 선인장』과 『해바라기』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인식

연작 형식⁹⁾인 『가시 선인장』과 『해바라기』는 1967년 6월 전쟁의 패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점령하에 놓이게 된 1970년대의 요르단강 서안의 나불루스 Nablus 시를 배경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점령이 팔레스타인 사회에 가져다 준 구조적 변화와 그 변화에 대응하는 인물들의 다양한 사회의식, 태도, 행동유형을 보여준다.

1부 『가시 선인장』은 이스라엘에 가서 일하는 팔레스타인 노동자의 문제, 사회계층 및 세대간의 갈등, 점령지내에서의 무력투쟁과 앞으로 일어날 인티파다 'Intifa:dah¹⁰⁾에 대한 예고 등 점령하의 팔레스타인의 사회 상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반면에 2부 『해바라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사회적 억압과, 여성을 극도로 비하하는 전통적인 이슬람 사회의 인습과 제도, 내면화된 가치관과 남성들로부터 받는 억압이라는 다중의 굴레 속에 놓인 팔레스타인 여성의 상황이 집중적으로 탐구되면서, 여성이 개인적 탈출의 차원을 넘어 민족 공동체의 투쟁에 합류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민족해방과 이를 위한 저항이라는 정치의식과, 여성해방의식은 연작 소설의 척추를 이루지만 제 1부에서는 정치의식에, 제 2부에서는 여성 의식에 각각 작품의 초점이 모아진다. 따라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인식은 이 연작소설을 관류하는 기본적 시각인데, 1부는 탈식민주의 시각이 강한데 비하여, 2부에서는 여성해방 시각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9) 이 두 소설은 각각 독립된 장편소설로 읽힐 수가 있는데도, 작가는 『가시 선인장』을 제1부로, 『해바라기』를 제2부로 하여 소설이 완결되었음을 작품의 말미에 명시해 놓았다.

10) 인티파다는 떨림, 동요라는 뜻이며, 1987년 12월 이후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온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을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이제 이론적 대입보다는 작품의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탈식민주의 인식이 이 연작 소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기로 하자.

소설은 『가시 선인장』이 34장, 『해바라기』가 35장으로 나뉘어 전개되며 전지적 화자에 의한 객관적 서술이 중심을 이루지만, 인물들의 의식의 흐름과 내적 독백, 대화, 이제는 저항의 무기로 변해 버린 구전의 노래와 시, 관용어구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소설의 내부적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원적 대립구조를 보여 준다.

점령자 (이스라엘) / 피점령자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남은자 (요르단강 서안에 남아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 떠난자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낭만적·혁명적 주인공 (우사마) / 현실적 주인공 (아달)

봉건적 지주계층 (알-카르미家) / 노동자 계층 (이스라엘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 계층)

무능하고 허상에 매달리는 구세대 (아달의 아버지, 알-카르미家의 농장 머슴이었던 샤히다의 아버지, 잡지사 편집위원들) / 희망의 세대인 신세대 (바실)

부상하는 계층 (샤하다) / 몰락하는 계층 (아달 알-카르미家)

가부장적 권위와 억압적인 사회구조 (알 카르미家의 아버지, 잡지 관계자, 사회전체) / 억압받는 여성 (알-카르미家의 어머니, 누와르, 라피프, 사오디아, 카드라 등 모든 여성 등장인물)

『가시 선인장』은 우사마 'Usa:mah의 귀향으로부터 시작된다. 67년 전쟁 직후 요르단강 서안을 떠나 산유국을 전전하면서, 아랍 형제국에서 조차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는 이유로 온갖 박해를 받던 그는 휘다이 Fida:'i:(팔레스타인 게릴라)의 일원이 된다. 그는 이스라엘 당국의 가족상봉의 허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 오지만, 팔레스타인 사회의 엄청난 변화에 직면한다. “산밑에 까지 뻗어 있던 농토를 이스라엘이 다 불살라 버려”(Sahar Khali:fah, 1976:29, 앞으로 이 책에서의 인용은 괄호 안에 번호만 기입하기로 한다), 팔레스타인 경제의 근간인 농업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이스라엘 리라가 굶주림 보다 낫다”(p.60)는 생각으로 “7만이나 되는 팔레스타인 노동자가 이스라엘 공장을 메우고”(p.28) “신분제도는 사라졌고 이제 하녀들은 더 이상 하녀가 아니다”(p.32) 또한 이러한 팔레스타인 사회의 급격한 붕괴는 가치관의 붕괴를 가져온다. 우사마는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담배질을 하고, 포르노 같은 영화선전이 거리를 뒤덮고… 잘먹고 잘사는 일에 빠져 저항의식이 실종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이

스라엘에 의한 점령인가? 아니면 자체 붕괴인가? 개탄하게 된다.”(p.32)

소설은 몰락한 지주 계층인 알-카르미家の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대간의 갈등을 강조하면서 전개된다. 세대간의 가장 첨예한 갈등은 몰락한 지주이며 가부장적 권위의 상징인 아버지와, 아달 ‘A:dil의 동생이며 막내 아들인 바실 Ba:sil(일명 아부 알-잇즈 ‘Abu al-‘Izz)사이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그는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저항적인 인물이다. 누나를 의사에게 강제로 결혼시키려는 아버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누나가 저항운동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쌀리흐 Sa:lih라는 인물을 사랑하고 있음을 가족들에게 폭로한다. 바실은 민족투쟁에 연루되어 투옥되고 누대를 내려오던 알-카르미家の 대 저택은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폭파된다.

바실은 어린 나이에 소위 ‘감옥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성숙한 현실인식과 확고한 민족의식을 겸비한 투철한 투사로 성장한다. 『가시 선인장』의 “아부 알-잇즈에게, 모든 아부 알-잇즈에게”라는 헌사는 바실이 우사마의 발전적 계승자이며 미래를 향한 긍정적 안내자로 선택됐음을 더욱 뒷받침 해준다.

이러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대개 세 부류로 나누어 진다. 첫째는 우사마와 같이 현실을 무시한 저돌적 혁명가의 유형이며, 둘째는 투철한 민족의식이나 이데올로기 없이 생계에만 매달리는 유형인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에 속한다. 셋째는 아달과 같이 민족투쟁과 현실을 조화시키며 점진적인 투쟁을 해나가는 합리적 이성주의자의 유형이다(Faysal Darr:,j, 1981:318).

우사마의 사촌이며 알-카르미家の 장남인 아달은 노동자들을 구하지 못하자 자신의 농장을 버려둔 채 이스라엘 공장에서 일을 한다. 그는 무지한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며, 생계문제와 민족투쟁을 조화시켜 보려 하지만 때때로 회의에 빠지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얻은 빵으로라도 살아 남아야 한다는 아이러니를 우사마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달과 우사마 사이의 갈등은 완화될 수가 없다. 결국 우사마는 팔레스타인 외부에 있는, 그가 속한 저항 조직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동포인,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타고 이스라엘 공장으로 출근하는 버스에 폭탄을 투척한다. 이 전투에서 노동자인 주흐디 Zuhdi도 이스라엘 군인의 총을 맞고 죽고, 우사마 자신도 이스라엘 군에 의해 사살되고 만다.

『해바라기』에서는 알-카르미家の 계보를 이어가면서도 등장인물과 사건·배경이 더욱 확대되는데, 주흐디가 죽고나서 여섯명의 자녀를 거느린 가장의 역할을 떠맡게 된 그의 아내 사아디아 Sa’diyyah와 알-발라드 al-Balad 잡지사에 근무하게 된, 아달 알-카르미의 동료이자 여성친구인 급진적 페미니스트 라피프 Rafi:f의 두 축으로 나누어

전개된다. 라피프는 처음에는 남성을 여성의 적으로 보는 편협한 여성의를 보이지만 작품 말미에 가서는 여성 의식과 민족 공동체 의식을 하나로 연합하는 성숙한 면모를 보이게 된다. 사아디야는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 현실적이고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어쩔수 없이 현실에 부딪히 변모하면서 여성 의식과 정치 의식을 갖게 되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전형적 여성상이다. 두 인물의 변화에 촉매 역할을 한 것은 이스라엘 당국의 토지 수용과 이에 반발하는 민중의 저항이었다. 한편 출옥한 바실은 현실이라는 ‘더 큰 감옥’에서 보다 성숙한 자세로 저항에 앞장선다. 소설의 중심 무대가 되는 『가시 선인장』의 알-카르미家나 『해바라기』의 알-발라드 집지사는 가부장적 권위, 무능, 비능률 등에 있어 팔레스타인 문화의 하나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다.

‘탈식민주의 Post Colonialism’는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비교적 낯선 용어인데, 빌 애쉬크로프트 Bill Ashcroft는 그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예전에는 포스트콜로니얼이라는 용어를 독립 전과 독립 후를 구별하기 위해 쓴 적도 있었다(예컨대 식민지 시대 ‘colonial period’와 식민지 이후 시대 ‘post-colonial period’). 그러나 우리는 이제 ‘포스트콜로니얼’이라는 용어를 식민지시대부터 시작해서 독립을 쟁취한 후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적 과정의 피해를 본 모든 문화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Bill Ashcroft, 1989:1-2, 김성곤, 1992:13에서 재인용)

탈식민주의가 “서유럽 식민주의의 종속적 힘이 부분적으로라도 그 주권을 구성해 온 사회의 문화적 현실에 기반을 둔 글쓰기와 글읽기의 실천을 기술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이경순, 1992:69), 탈식민주의 이론과 실천이 ‘되받아 쓰기 write back’같은 고도의 지적 전략을 통하여 에드워드 사이드 Edward Said가 말하는 ‘희생자의 기준’에서 제국주의에 패배당해 온 과정과 제국주의 문화를 다시 쓰고, 식민적 텍스트를 재배치하는 일에 관여하지만, 탈식민주의는 궁극적으로 가시적·불가시적 식민주의로부터 벗어나려는 반제국주의적·민족주의적·제3세계적 문예사조라고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하르 칼리파의 소설에 탈식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우기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은 식민지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는(결코 ‘극복하면서 동시에 계승하려는 것’이 아닌) 철저한 ‘탈식민주의’를 의미한다고”(김성곤, 1992:13)할때 더욱 그러하다.

이제 이 소설에 드러나 있는 탈식민주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자.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은 같은 이스라엘 노동자 계층에게는 이해와 연민을 가지면서도 지금까지 자신들을 경제적으로 수탈해 온 지주계층에 대한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은 이스라엘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이스라엘 측의 노동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산재에 따른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이들을 따라다니는 Aravim ('Ara:fi:m)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랍인들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아랍인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의 비하적 태도와 그들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원주민', '야만인'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식민주의 수사학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과거 농장주의 아들 아달과 농장 머슴의 아들인 샤하다 Shaha:dah는 모두가 이스라엘에 가서 일을 하게되는데, 샤하다는 재빨리 변신하여 현실에 적응해 갑자기 졸부가 되기도 한다.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샤하다의 변신은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하는 소위 '제휴'¹¹⁾의 한 변형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아달이 이스라엘의 반 시오니스트와 접촉하여 그들과 어떤 연계를 가지고 민족적인 저항활동을 보이려는 시도는, 우사마가 점령현실에 대한 책임의 큰 부분을 팔레스타인 스스로에게 돌리는 시각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배타적·국수주의적 팔레스타인 민족문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복합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또한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하게 될 사하르 칼리파의 토속적인 언어구사는 팔레스타인의 경우 단순한 언어의 토속성을 넘어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을 확인시키는데 기여한다.

본 소설이 기본적으로 탈식민을 가능케 할 해방과 저항의 언술이라는 점, 점령상황에 대한 자기 반성 및 이스라엘에 대한 노동력 제공과 무력 투쟁에 대한 복합적인 시각, 이스라엘 좌파와의 접촉과 공존 가능성에 대한 모색, 토속적 언어를 통한 팔레스타인이라는 장소성의 강조,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의 탐색 등 탈식민주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이 작품은 국수주의적이며 배타적일 수 있고, 반외세만을 고집하며 단선적인 편협성을 드러낼 수 있는 민족문학의 차원을 넘어서 탈식민주의 실천의 한 양태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IV. 『가시 선인장』과 『해바라기』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인식

주디스 버터 Judith Butler의 말대로 “여성은 인식론적인 면에서 제국주의자적 식민과 별 차이가 없다”(Judith Butler, 1991:86-88; 이경순, 1992:83 재인용)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제도적 차이에 근거한 남녀 관계를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Bill Ashcroft, 1989:163, 김성곤, 1994:13 재인용)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요체라

11) 사이드가 말하는 '파생 filiation'이란 태어나면서 주위와 갖게 되는 관계이고, '제휴 affiliation'란 후천적으로 주위 상황과 맺게 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사이드는 많은 엘리트 지식인들이 지배문화에 편입되기 위해 자신의 '파생'을 부정하고 지배권력과의 '제휴'를 선택했다고 말한다(김성곤, 위의 논문:19).

고 한다면 사하르 칼리파의 『가시 선인장』과 『해바라기』는 제 3세계 유색 여성 작가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글쓰기의 하나의 실천 양상을 보여 준다.

먼저 본 장에서는 남성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전형화되어 있는 여성 등장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여 점령하의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상황과 그들의 여성 의식·정치 의식을 조명해 보고, 작품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미학적 전략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여성 인물인 라피프와 사이디아의 성격을 보기로 하자.

아틸이 근무하는 잡지의 동료이며 그의 여자 친구이기도 한 라피프는 알-발라드 잡지의 유일한 여성 편집자요 시인이다. 그녀는 “여성 문제는 조국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고, 여성 문제는 조국의 문제의 본질적인 한 부분”(Sahar Khalifeh, 1980:17, 앞으로 이 책에서의 인용은 괄호 안에 번호만 기입하기로 한다)이라고 믿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다.

“나는 길이 차에 탄 사람 이전에 보행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신호등이 하나의 사기이며 음모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지요. 누가 신호등을 거기에 만들어 달았고 규칙을 정해 놓은 거예요? 멍청한 사람들이나 그걸 믿죠. 나는 믿지 않아요. 나는 언제든 내가 원할 때 길을 건너요. 나는 자유로워요. 내가 원할때 길을 건너 단 말예요. 나는 신호등 사인을 기다리지 않고, 내 스스로 신호등을 만들어요.”(p. 10) 라는 그녀의 말은 그녀가 기존의 남성 지배적 가치에 반발하고 이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틸에게 친구 이상의 애정을 갈구하며 정신적으로 그에게 얽매어 있으면서도 공연히 그에게 반발하다가, 다시 “고양이 처럼 살금 살금 그에게 돌아가기도 하고”(p. 13) “왜 우리가 이런 년센스를 계속 제공해야 하는가? 그것은 진보적 잡지인가, 아닌가? 나는 알고 싶다. 그것이 정말 진보적이라면, 우리는 마치 특별히 유리된 사회계층인 것처럼 여성을 취급하는 것을 즉시 그만두어야 한다. 여성도 인간이고 남성이 읽는 것을 읽어야 한다. 그들의 관심사는 남성의 것과 같아야 한다. 왜 우리는 그들에게 특별한 칼럼을 주어야 하는가? 년센스다”(p.106)라고 하면서 여성란의 폐지를 주장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잡지의 절반까지 여성란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상반되고, 성숙되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모순과 불일치는 그녀가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슬람 사회속에서 내면화되어 버린 가치관과 여성 해방에 대한 과도한 자의식 사이에서 자아의 분열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라피프는 작가 자신에게 가장 근접해 있는 인물로서, 버려야 할 유산으로서의 기존의 가치관과, 새로운 여성 의식을 가지고 창조해 가야할 미래 사이에서 갈등하는 교육 받은 팔레스타인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¹²⁾이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대규모로 수용당하고 이에 반발하는 민중적 저항을 경험하면서, 또한 교육받지 못한 평범하고 현실적인 여인인 사아디아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그녀의 의식은 성숙한다. 이제 그녀의 시선은 더이상 아달이라는 한 남성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민중을 향하여 열려 있다.(p. 250) 이제 그녀에게 있어서 남성은 더이상 여성의 적대적 존재가 아니요, 민족의 해방을 통하여 여성과 더불어 해방되어야 할 존재일 뿐인 것이다.

이 소설이 구태여 이러한 연작형태를 고집한 것은 남성이 먼저 해방되고 나서 여성이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은 동시에 해방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남성들의 시각처럼 여성문제는 부수적, 2차적 문제가 아니며, 정치의식과 여성의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에 근거한 작가의 현실인식의 반영에 다름아니다.

사아디아는 남편만을 의지해 살아 오던 평범한 여인이었으나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보호자 없는 땅’(p. 30)처럼 남겨진다. 그녀는 여섯이나 되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의류 회사의 일을 가져다가 집에서 재봉일을 한다. 그러나 이웃 여자들은 그녀가 이스라엘과 협력하며, 부끄러움도 모르고 가사가 아닌 바깥 세상의 남자들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비난하고 질시한다. 돈을 벌어 가족을 위한 식품을 사가지고 귀가할 때면 그녀는 자신이 마치 남자가 된 듯한, 또는 반이라도 남자가 된 듯한 느낌을 갖는다.(p.35)¹³⁾

사아디아의 꿈은 중산층이 사는 ‘양지바른 산 언덕’에 집을 짓고 이웃 여인들의 질시를 피해 이 달동네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그녀는 장남인 라샤드 Rashad가 저항운동에 가담하지 못하게 만류하면서, 갓은 고생 끝에 땅을 장만하지만, 그녀의 꿈은 이스라엘의 토지 수용으로 산산 조각이 나고 만다. 민중 의식이나 정치 의식과는 전혀 무관한 채, 오직 개인적인 탈출만을 꿈꿔왔던 그녀에게 중산층이 사는 동네의 ‘양지 바른 땅’의 몰수는 바로 그녀의 꿈이 몰수 당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 점령 상황에서의 민족의 운명은 개인의 운명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절감하고 마침내 개인적인 탈출을 포기하고 민중적 저항에 합류한다. 소설의 마지막 문장에서 경찰에 들팔매질을 하며 토지 수용에 저항하는 데모대에서 아들을 발견한 사아디아의 “공격해라. 공격해.

12) 팔레스타인 문학에서 토지(국토)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13) 아랍 여성이 가사 이외의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자신들을 남성처럼 느끼는 현상은 Layla: ‘Usayra:in 등 다른 아랍 여성 작가의 작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Zeidan, Joseph Tufekci, *Women Novelists in Modern Arabic Literature*,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h.D, 1982, p. 422) 이러한 사실은 아랍 여성 자신이 여성은 무능하고 하등한 존재라는 남성 우월적 가치 체계를 내면화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내 아들이 공격해. 내 사랑 주흐디.” (p.279)라는 외침은 그녀가 이제 민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들이 라샤드가 순교한 남편 주흐디와 동일시 된다는 것은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순교의 길을 계승했음을 의미한다.

사아디아가 민중적 여성의 전형이라고 할때, 그녀와 대칭되는 유형의 여성으로 누와르 Nuwa:r를 들 수가 있다. 아딜의 누이 동생인 그녀는 비록 몰락했지만 상류 계층 출신의 교육 받은 여성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감옥에 있는 청년 투사를 사랑하지만 결국 오랜 기다림을 이기지 못하고 동요되고 만다.

비록 주변적인 인물이지만 서로 극히 대조적이며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관심을 끄는 인물은 알-카르미家の 어머니와 창녀인 카드라 Khadrah이다. 무기력과 굴종의 상징인 어머니는 이름도 없이 완전히 소외되고 물화된 존재이다. 그녀는 존재하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nothingness, nonexistence, *lashayyya*) 그 자체이며, 전 세대 아랍 여성의 전형이다. 카드라는 남편의 구타와 학대를 참지 못하고 집을 뛰쳐 나와 창녀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 준 한 노인과 동거하면서 기꺼이 그를 부양한다. ‘신에게 조차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녀는 이스라엘 경찰이나 군인들에게도 주저없이 저항하며, 팔레스타인 게릴라들과도 연관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녀는 억압과 차별의 가장 큰 희생자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건강한 삶을 사는 인물이기도 하다.

사하르 칼리파와 같은 팔레스타인의 나블루스 출신으로 아랍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여성 시인인 파드와 뚜간 Fadwa: Tuqa:n (1917 ~)은 여성을 싫어하는 문화(misogynist culture)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여성으로 만들어지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부장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은 ‘아니요’라는 말의 존재를 망각하도록 강요받는다… 그러나 ‘예’라는 말은 젓먹이 어릴 때부터 평생토록 입술에 껌같이 달라 붙어서 앵무새처럼 뇌는 말이 된다.(Fadwa: Tuqa:n, 1985:40, Fedwa Malti-Douglas, 1991:178 재인용)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점령으로 야기되는 정치적·사회적 억압, 봉건적·가부장적 이슬람 사회의 제도 및 가치관으로 부터 받는 억압, 남성으로 부터 받는 제약과 억압 등 다중의 억압 속에 던져져 있는 점령하의 팔레스타인여성이야 말로 스피박 Spivark이 말한 ‘타자적 존재’, ‘피식민지적 존재’, ‘소외된 하위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소설의 여성 등장 인물들이 모두 이러한 억압의 ‘희생자’들이며, 그들이 결과적으로 성숙한 여성 의식과 정치 의식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변모가 현실에 의해 강요된 변화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스라엘 반시오니스트와의

연계를 모색하면서도, 같은 동족이며 그들의 반을 차지하는, 누이이며 애인인 여성들의 자유에의 욕구와 갈등에 무관심한 남성 주인공들이나, 사아디아의 이웃 여인들 처럼 남성들 보다는 오히려 여성들 자신이 같은 여성을 억압하는 현실에서 크나 큰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 연작 소설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의 미학적 전략을 살펴보기로 하자. 사하르 칼리파는 이 소설에서 탁월한 언어 구사와 함께 상징, 연상 등 다양한 문학적 도구를 활용한다. 상징과 연상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하고, 이 소설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시각에 기초한 언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하기로 하겠다.

이 작품에 나타난 가장 큰 상징은 알-쑤바르 『al-Suba:r』와 압바드 알-샴스 『Abad al-Shams』라는 소설 제목 자체가 아닌가 한다. 『al-Suba:r』와 『Abad al-Shams』는 『가시 선인장』과 『해바라기』를 의미하지만 ‘지극히 참고 견디는 자’, ‘태양을 숭배하는 자’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어서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암시해 준다.

때때로 어떤 단어는 등장인물의 마음 속에 연상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연상들은 표면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등장인물의 경험과 의식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¹⁴⁾

사하르 칼리파는 주로 3인칭 객관적 화자의 전지적 시점에 의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지만, 또 다른 기법 즉,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선명히 드러내는 내적 독백이나 의식의 흐름, 풍부하지만 절제된 암시를 담고 있는 대화 등에 의존하기도 한다. 사하르 칼리파의 아랍어를 구사하는 기술은 상당히 개성적이며 특히, 『해바라기』에 와서 더욱 완벽해 지고 있다. 그는 객관적 화자의 진술에는 지금까지 소설의 보편적 언술이 되어 온 문어체 표준 아랍어를 사용하고, 의식의 흐름이나 대화에서는 팔레스타인 방언을 사용한다. 이러한 언어구사는 천편 일률적으로 문어체 표준 아랍어 만을 소설의 언어로 고집해 왔던 팔레스타인 남성 작가들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식의 흐름·독백·대화에서 어느 정도의 팔레스타인 방언을 사용하느냐는 인물의 문화적·교육적 배경에 따라 그 층위를 달리한다. 이러한 독특한 언어 구사는 인물에게 리얼리티를 부여해 인물이 화석화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이라는 장소성의 강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장소성의 부각은 민족적 정체성의 확립으로 이어진다.

논자의 견해로는 사하르 칼리파 소설의 가장 큰 전략은 바로 일상의 언술을 소설적

14) 그 한 예로서 ‘yarhamu(자비를 베푼다)’라는 단어는 라피프의 마음에서 알라 의 자비는 팔레스타인이나 아랍, 아프리카에 있지 않고 미국과 시오니스트들 에게만 있다는 연상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연상은 제 3세계적, 탈식민주의적인 그녀의 의식을 드러낸다. Sahar Khali:fah, 1980, p.20.

인술화한다는 것이다. 그는 소외된 여성들의 일상적 삶의 단면을 일상적 언어, 속어적 표현을 통해서 역사적 진실로 만들고 있으며, 억압받는 여성의 개인적 삶의 탐구를 통하여 집단적 삶을 규명한다. 또한 사하르 칼리파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민간전승의 노래와 구어체 시(pp.160-162, 167, 264-265), 토속적인 관용구 등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일상이 가지는 단조로움과 문학 언어로서의 한계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할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이라는 장소적 배경을 강조하고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효과적이다.

사하르 칼리파의 이러한 속어의 사용은 본질적으로 ‘여성의 언어는 속어’라는 길버트 Sandra Gilbert와 구바 Susan Gubar의 주장(이경순, 1992:79)을 뒷받침한다. 문어체 표준아랍어는 여성의 언어라기 보다 남성의 언어이다.(Farida Abu-Haydar, 1989: 471-472) 사하르 칼리파는 여성의 억압자인 남성적 언어, 형식화되고 가부장적인 언어, ‘메트로 폴리탄이 된’ 언어인 문어체 표준아랍어에 대한 대응으로 일상의 구어체 언어나 속어를 소설적 언어화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바로 파이살 다르라즈 Faisal Darra:가 사하르 칼리파의 가장 큰 장점으로 지적한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소설적 문체”(Faysal Darra:j, 1981:125)의 실체인 것이다.

V. 『가시 선인장』과 『해바라기』의 변별적 요소

먼저 이 연작소설을 갖산 카나파니, 자브라 이브라힘 자브라, 이밀 하비비 등 소위 팔레스타인 소설의 3거두의 작품세계와 비교해 볼 때, 작가의 현실인식, 주제, 소재, 예술성 등에서 어떤 변별적 요소를 갖고 있나를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여타 여성 작가와의 차이도 확인하도록 하겠다.

위의 세 작가 중에서 자브라 이브라힘 자브라는 가장 부르주아적이고, 지식인을 주인공으로하는 자전적 작품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에서(송경숙, 1992: 43-44)민중·민족문학을 표방하는 나머지 작가들과는 대조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다.

갖산 카나파니는 그 자신이 피난지를 전전한 작가로서 『태양속의 남자들 Rija:l fi: al-Shams』(1963), 『당신들에게 남은 것 Ma: Tabaqqa: Lakum』(1966), 『사이드 엄마 Umm Sa'ad』(1969) 등의 대표작을 통하여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의식의 변모과정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하였다. 그는 피난지의 삶을 소재로 하여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정치의식이 상실·좌절·죽음을 넘어, 의식의 전환과 개인적 반항으로, 나아가 사회적·집단적 혁명으로 변모되어 가는 과정을 간결한 문체와 시적 언어, 풍부한 상징, 탄탄한 구성을 통하여 문학적으로 형상화 하였다.

사하르 칼리파와 갓산 카나파니는 작가의 현실의식이나 민중적 주제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특히 민족적 저항기에는 개인의 꿈이나 개인적 탈출은 불가능하고, 민족 공동체와 운명을 함께 해야 하며, 기성세대를 무능과 굴종의 세대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팔레스타인의 내일을 열 희망의 세대로 인식하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밀 하비비는 1948년 1차 중동전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그대로 남았고, 현재는 이스라엘의 하이파에서 활동하는 정치가 출신의 작가이다. 그는 이스라엘 내에서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2등 시민으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을 뛰어난 풍자와 해학으로 표현하여 팔레스타인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사하르 칼리파는 1967년 6월전쟁 때 점령당한 요르단 강 서안의 민중의 일상적인 삶, 특히 타자적 존재인 여성의 일상을 통하여 민족문제와 여성문제의 불가분성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갓산 카나파니, 이밀 하비비, 사하르 칼리파는 각각 피난지, 이스라엘 내(內), 1967년의 점령지라는 작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의 팔레스타인 민중의 삶을 작품의 소재로 하여 민중·민족문학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갓산 카나파니나 이밀 하비비의 문학에서 여성은 아주 미미한 주변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의 작품에서(‘사이드엄마’를 제외하고는) 여성이 주요 등장 인물이 되는 경우란 거의 없다.

그러나 사하르 칼리파는 “여성은 자기 자신을 글로 쓰지 않으면 안된다. 여성은 여성에 관해서 써야 하며, 여성을 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여성은 지금까지 자신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글쓰기로부터도 심히 내뺄개쳐져 왔다…… 여성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 자신을 세계와 역사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텍스트로 만들어야 한다.”(Hélène Cixous, 1980:245; 이경순, 1992:78 재인용)는 헬렌 식수 Hélène Cixous의 말대로, 남성 작가가 다루어 주지 않는 여성을 그의 글쓰기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여성이 소외된 타자일 수 밖에 없는 팔레스타인 문화와 문학 풍토에서 사하르 칼리파는 극히 자전적 글쓰기를 통하여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이러한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연작소설의 변별적 가치라고 여겨진다.

또한 갓산 카나파니나 이밀 하비비의 문학을 민족 문학의 테두리 안에서 파악할 수 밖에 없는데 반하여 사하르 칼리파는 여기서 한 걸음 전진한 탈식민주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글쓰기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 두 작가와의 차이일 것이다.

지면 관계상 다른 아랍 여성 작가 개개인과의 비교는 생략하고 아랍 여성 문학의 일반적 흐름 속에 사하르 칼리파의 문학을 놓고 대조해 보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여성 해방론의 전개 과정을 보면 여성의 교육과 해방이 지식층과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현대화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서정자, 1987:9-27)는 점에서 한국과 아랍세계

는 전적으로 동일하다. 아랍 여성 문학이 본격화 된 것은 2차대전 이후부터이다. 1960년대 후반까지의 아랍 여성문학은 계급 차별의식이나 여성운동의 정치적·사회적 중요성 보다는 가정 안에서 여성의 개인적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였다. 자유를 동경하고 현실도피를 꿈꾸다 이슬람 사회의 인습의 벽에 좌절 당하는 중·상류층의 젊은 여성이 주인공의 전형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여성문학은 남성을 여성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여성 개인의 정체성을 주장하였고 작품성, ‘내향성’ 보다는 ‘외향성’에 관심을 두는 여권론적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와서 아랍 여성문학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정치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여성 작가들은 여성만이 억압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역시 억압 받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해방 되어야 하고, 민족의 해방 없이는 여성해방은 있을 수 없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외향성’ 보다는 ‘내향성’ 즉 여성 작품의 고유한 텍스트성(김열규, 1990:74)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하르 칼리파의 이 연작 소설은 주제면에서나 작품에 내재하는 여성적 글쓰기의 미학성의 추구면에서도 아랍 여성 문학의 일반적 흐름과 동일선상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요르단 강 서안에 있는 나블루스시의 여성들의 일상, 그 개인적 삶을 탐구함으로써 민족적·집단적 삶을 보여주는 사하르 칼리파의 문학은 “자아 탐색의 주제는 한 개인이 이웃이라는 커뮤니티와의 연계 속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하고 선택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기확립을 이루는” 토니 모리슨 Toni Morrison의 소위 ‘마을문학’(두진숙, 1992:140-141)을 연상하게 하기도 한다.

끝으로 제 3세계 민족주의와 반미주의, 1980년대적 사회의식을 보여주는 윤정모의 장편 소설 『고삐』(1988)와 본 연작 소설을 간략히 비교하고자 한다. “외세와 혈연과 여성 관계를 과학적으로 해명해보고 싶었으며 개인적인 가족사의 체험을 민족사의 차원으로 확대하여 통찰해 보고 싶었다”는 작가의 후기는 두 작품의 비교 가능성을 한층 높여 주기도 한다. 여성 개인의 경험을 민족사의 차원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윤정모의 『고삐』는 제국주의적 외세만을 비판할 뿐 성차별적 남성 중심의 사회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으므로써 성의 정치학에 대한 이해의 결여를 드러낸다. 또한 매춘현상을 종속이론의 틀속에서 제 3세계의 사회적 모순으로만 돌릴뿐 자아의 성찰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송명희, 1993)에서, 점령의 현실에 대하여 배타적 태도에 앞서 ‘이것이 점령인가, 아니면 자체 붕괴인가’를 끊임없이 자문하며 자신을 비판하는 사하르 칼리파의 작중 인물의 의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VI. 맺는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3세계에 속해 있으면서도, 제3세계의 문화나 문학에 대한 온당한 가치 평가에 인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제3세계 문학의 한 부분인 아랍문학, 아랍문학의 작은 지류인 팔레스타인 문학, 더우기 팔레스타인 문학 가운데서도 소외된 주변부 문학인 팔레스타인 여성문학에 대하여 별다른 기대와 관심을 갖지 않을 뿐아니라 이를 온당한 시각으로 평가하려 들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풍토가 아닌가 한다.

1948년 이후 계속된 팔레스타인 민중의 역사적 질곡과 그들의 삶의 조건을 생각할 때, 우리는 팔레스타인 문학이 단조로운 이데올로기의 반영 이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러나 민족의 비극인 6.25동란이 우리 문학에 대단히 비옥한 지평을 제공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상황도 작가들에게 다양한 현실 경험을 제공했고, 부단히 창작의욕을 자극해 왔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팔레스타인 작가들은 그들의 작품이 ‘주장’, ‘메시지’가 아닌 ‘예술’, ‘소설’이 되기 위하여 치열한 실험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팔레스타인의 비극은 지극히 역설적으로 문학적 축복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내뿜지 않을 수 없는 ‘절규’가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 되느냐, 그 문학적 성취에 우리의 관심은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하르 칼리파의 연작소설 『가시 선인장』과 『해바라기』는 1967년 6월 전쟁의 패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점령하에 놓이게 된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 특히 이중, 삼중의 억압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우리 앞에 선명히 펼쳐 보여준다.

보여주기 보다는 많은 것을 빨리, 단번에 이야기 해주려는 작가의 조급함이 때때로 작가와 텍스트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적절한 동기부여 없이 3인칭 서술자로부터 등장인물의 내면세계로 무리하게 시점이 전환됨으로써 미학적 성과가 희생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사하르 칼리파는 섬세하고 서정적이며 투명한 스타일과 무엇보다도 독창적 소설 언어를 가지고, 여성의식이 정치의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여성해방과 민족해방이 유리될 수 없는 명제임을 보여준다.

요컨대 본 연작소설은 제한된 민족주의를 벗어나 탈식민주의 시대의 팔레스타인 담론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제3세계 유색 여성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글쓰기의 참다운 실천적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김성곤

1992, “탈식민주의 Post-Colonialism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여름, 제 31호.

1994, “탈식민주의적 채취기와 영문학 연구” 『외국문학』, 여름, 제 38호.

김열규

1990, 『페미니즘과 文學』, 서울:文藝出版社

두진숙

1992, “Toni Morrison 研究 :自我의 탐색과 커뮤니티의 역할”,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英語英文學科, (박사학위논문).

서정자

1987, “日帝強占期 韓國女流小說研究”,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英語英文學科, (박사학위논문).

송경숙

1984, “팔레스타인 민족문학의 실체” 『외국문학』, 제2호, 1984, 가을.

1988, “팔레스타인 민족해방 문학” 『高大新聞』, 第1287호.

1991, “사회변혁과 현대 아랍소설 - 혁명을 위한 새로운 지평” 동서문학.

1992, “갓산카나파니 연구 - 팔레스타인 民族解放運動의 文學的 反映” 韓國外國語 大學校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참여와 풍자, 낙관과 희망의 문학”, 『문학정신』, 제68호.

송명희

1993, “윤정모의 소설에 나타난 제3세계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한국여성문학 연구회 발표문, 1993.12.3).

이경순

1992,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외국문학』, 여름 제 31호.

Farida Abu Haidar

1989, “Are Iraqi women more prestige conscious than men? Sex differentiation in Baghdadi Arab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Fa:ru:q Wa:di:

1981, *Thala th 'Ala'ma't fi al-Rwa'yah al-Filastiniyyah (Ghassa:n Kanafa m., 'Im:l Habu.bi, Jabra: 'Ibra:him Jabra) al-Mu'assasah al-'Arabiyyah Liddira:sa:t waal-Nashr Da:'irat al-'I'la:m waal-Thaqa:fah Munazzamat Tahri:r al-Filastiniyyah.*

Faysal Darra:j

1981, "Dira:sah fi: Riwa:yyh Sahar Khali:fah : Qawl al-Riwa:yyah waal-Wa:qi'"
Shu'u:n Filastiniyyah, No.3.

Fedwa Malti-Douglas

1991, *Woman's Body, Woman's Word-Gender and Discourse in Arabo-Islamic Writing*,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hassa:n Kanafa:ni:

1968, '*A:da:b al-Muqa:wamah fi: Filastini: al-Muhtallah 1948-1966*, Beirut:
Manshura:t Da:r al-'A:da:b.

Hisa:m al-Khati:b

1990, *Dila:l Filastiniyyah fi: al-Tajribah al-'Adabiyyah* Da'irat al-Thaqafah
Munazamat al-Tahri:r al-Filastiniyyah.

J. Burgman

1984,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Modern Arabic Literature in Egypt*, E.J.
Brill, Leiden, 1984

Mikhail Ashrawi Hanan Daud

1982, *The Contemporary Literature of Palestine Poetry and Fiction*, University of
Virginia, Ph.D.

Roger Allen

1982, *The Arabic Novel in Historical and Critical Introduction*, University of
Manchester.

Sahar Khali:fah

1974, *Lam Na'ud Jawa:ri: Lakum*, al-Qahirah : Da:r al-Ma'arif.

1976, *al-Subba:r*, al-Quds : al-Ta'a:wniyyah 1976.

1980, '*Abbad al-Shams*, Bayrut : Da:r al-Fa:ra:bi:, Da':irat al-'i'la:m waal-
Thaqafah fi Munazzamat al-Tahri:r al-Filastiniyyah.

Salma: Khadra: Jayyusi ed.

1992, *Anthology of Modern Palestinian Literature*,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Zeidan, Joseph TufEEK

1982, *Women Novelists in Modern Arabic Literature*,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h.D.

A Study on Palestinian Woman-novelist Sahar Khali:fah(1941-)
 —Focused on the Recognition of Post-colonial Feminism—

Kyung-Suk Song

This thesis examines from the viewpoint of post-colonial feminism the series long novel *The Cactus*(1976) and *The Sunflower*(1980) written by the Palestinian woman novelist Sahar Khali:fah.

In the second, studying, first, the characteristic of Palestinian novel as a deterritorialized literature, a resistant literature and a national literature and, second, the circumstances of the Palestinian novel which has been the historical records beyond a simple genre of literature, I want to fix Sahar khalifah's position in the Palestinian literature.

In the third, I examine how to overcome the level of the national literature which is exclusive and nationalistic and how to get the recognition of post-colonialism with more various sights.

In the fourth, understanding these works as a practical form of the post-colonial and feminist writings written by a colored woman in the third world, I study how to appear in these works the multiple suppressions inflicted on the Palestinian women under Israel's occupation, the senses of women liberation for overcoming it and examine closely the aesthetic stratage of woman's writing exchanging from everyday spoken language and slang into novelistic statements

In the fifth, comparing Sahar Khali:fah with men-novelists that represents Palestinian literature I have studied till now, I get the characteristics of her literature out of them.

The characteristics are, that is, post-colonial feminism. In other words, having the recognition that women liberation and national liberation are inseperable, she makes everyday spoken language novelistic statement and investigates at the same time the historical life of nation throuhout women's life as an individual.

송경숙,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교수
 주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6동 장미아파트 12동 905호
 Tel: 961-4261(O), 423-0568(H), Fax: 423-0284